

국민 10명 중 9명, 국토 16.6%인 도시 거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토 면적의 16.6%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108.8km²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1만 7635.9km²)이 전체의 약 16.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이는 전년(2016년) 대비 7만8824명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만 6108.8km²로, 도시지역 1만 7635.9km²(16.6%), 관리지역 2

국토부, 2017년도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

총 인구 5178만명 중 4754만명 '도시' 거주

만 7179.6km²(25.6%), 농림지역 4만 9345.6km²(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947.7km²(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km²(15.14%), 상업지역 330.9km²(1.88%), 공업지역 1181.5km²(6.70%), 녹지지역 1만 2616.7km²(71.54%), 미지정 지역 836.9km²(4.74%)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된다.

전년(2016년) 대비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3km²), 공업지역(14.7km²)은 증가했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km², 2.4km²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26.4km²가 증가했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km²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km²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km² 증가했으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km²), 녹지(12.5km²), 도로(2.3km²) 등은 증가했고 공원(-18.4km²)은 감소했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 9800건

(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 7만 4251건(24.3%), 토지분할 3만 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 7203건(320.2km²)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 2277건(256.4km²), 강원도 2만 8503건(167.7km²)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 3603건(28.3km²), 양평군 9090건(51.6km²), 평택시 5.376건(16.1km²)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km²로 교통시설(2,352.1km²)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km²), 공간시설(1,478.8km²), 공공문화체육시설(998.4km²), 유통 및 공급시설(235.3km²), 환경기초시설(107.7km²), 보건위생시설(48.9km²)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km²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km²), 녹지(97.1km²), 하천(90.5km²) 순이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km²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km²), 유원지(60.2km²), 녹지(43.4km²), 하천(15.4km²), 광장(12.6km²)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km²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km²), 경상남도(83.8km²), 전라남도(88.7km²), 부산광역시(61.5km²)가 뒤를 이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뉴스스



“바퀴 절반까지 물 차면 운전금지”

성인남성 무릎이나 차량바퀴 절반이상 물이 차다면 안전해 보여도 무리한 운전을 삼가야 한다.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도 걸리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서다.

1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 구소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까지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 손처리된 차량사고 통계를 살핀 결과에 따르면 3분의 1에 해당하 는 28.4%가 주행 중에 발생했다

출하기 위해 에어클리너 하단에 낸 구멍과 연결한 밸브다. 엔진까 지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고무 막을 덧댄 구조로 장착된다.

공기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다. 정확한 장착 위치는 차 량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에서 약 50cm높이에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운행 중 차량 이 침수되면, 배출구인 이곳에 도 리어 물이 흡입돼 엔진이 멈추게 된다. 심지어 재시동도 되지 않을

보험개발원 “침수피해 3분의 1, 주행 중 발생”

차량 하단에 물 배출용 밸브에 오히려 물 흡입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주행 중 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요원 이 제지하는데도 자의적으로 핸 들잡고 판단해 무리하게 침수지 역을 통과하다가 피해가 자주 발 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이 성인남성 무릎이나 차량 바퀴 절반이상까지 차다면 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에 물이 유입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차량 하단에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설치돼 있 어서다. 물 배출용 밸브란 공기를 흡입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배

위험이 크다.

이에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 수 깊이가 성인남성 무릎높이 이 상이거나 차량 바퀴 절반높이 이 상일 경우 진입하지 말 것”을 당 부했다.

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도 마찬 가지다.

차체가 높다고 안전하지 않다. 이 같은 대형차량 역시 에어클리 너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 에 설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침수지를 통과하다 엔 진이 멈출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비 오는 날도 유니크하게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만도)는 6층 '엠브로' 매장에서 방수 기능에 트렌디함을 더한 레인코트(레트로 우븐 롱자켓)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스

봉지 씌우지 않은 복숭아 '유미' 품종 곧 나온다

농진청, 내일 현장평가회... 19시간 노동시간 단축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복숭아 유미 품종이 곧 시장에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3일 전북 진주의 한 재배 농가에서 유미 품종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숭아 유미는 농진청이 지난 2008년 육성한 품종이다.

남부 지역에서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수확하는데, 같은 시기에 나오는 조생종 품종보다 맛과 크기가 뛰어나다. 무게는 평균 280g,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이다. 하얀색 과육이 잘 무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봉지 재배가 가능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복숭아 생산에 필요한 연간 노동 시간은 10a 기준 1628시간이며, 이 중 봉지를 씌우는데만 19시간이 걸린다.

복숭아 재배 농가는 병해충 피해 예방과 함께 열매가 터지거나 껍질 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봉지를 씌운 뒤 20여일 후 수확 해왔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로 봉지를 씌우는 작업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컸었다.

유미는 또 복숭아씨가 쪼개지는 핵할 발생이 적어 수출용으로도 알맞다. 경북 정도 삼성산 작목반에서 생산한 유미는 이달 초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수출하게 된다.

남은영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농업연구사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비해 앞으로도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 가능하면서 수출 시장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300만개 팔린 할랄 ‘대박라면’...국내에서도 판매

말레이시아에서 300만개가 팔려 나가면서 인기를 끈 '대박라면'이 국내에서도 판매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나 관광객들을 겨냥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세계푸드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판매하는 할랄푸드 '대박라면'을 국내에도 수입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대박라면은 지난 4월 신세계푸드

가 동남아시아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할랄푸드 개발해 출시한 제품이다. 현지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맛에 대한 호평을 바탕으로 300만개를 판매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 늘고 있고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국내에서도 판매하기로 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